

민주 “호남 탈환” 민생 “현역 불패”

광주·전남 총선 대진표 마무리 단계 ... 후보 경쟁 본격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여야 경쟁 대진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후보 간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호남 탈환’에 나섰다, 민생당은 현역 의원들을 앞세워 ‘인물론’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정의당도 인재 영입 등을 통해 진을 올리고 있다. 정의당은 현역 의원들을 앞세워, 미래통합당의 호남 출마도 시작했다. <관련기사 3면>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민생당도 사·도당과 지역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다. 통합당은 후보군을 압축해 놓은 상태다. 광주지역 8개 선거구에서는 신인급 민주당 주자들과 중진의 현역 민생당 국회의원 간 대결이 치열하다. 민생당 장병완 예비후보의 지역구인 동남갑에서는 민주당 윤영덕 후보가 당의 경선을 통과해 일전을 앞두고 있다. 통합당은 현역인 민생당 박주선 후보와 김성환 후보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지만 총선 일정이 빠듯한 데다 경선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병훈 후보가 한 판 승부를 준비하고, 정의당 최만일 후보도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민주당이 현역 송갑석 후보를 단수 추천한 서구갑에서는 민생당 김명진, 민주당 김주업 후보 등이 경쟁한다. 민생당 천정배 후보 지역구인 서구을은 민주당 양항자 후보의 공천이 확정됐고, 정의당 유종천 후보도 나선다.

북구갑은 현역인 무소속 김경진 후보와 민주당 조오섭 후보, 정의당 이상남 후보 등이 본선을 앞두고 있으며 김경진 후보의 민생당 입당 여부가 변수로 꼽히고 있다. 북구을은 현역인 민생당 최경환 후보와 민주당 이형석 후보, 정의당 황순영 후보가 경쟁한다.

광산갑은 현역 민생당 김동철 후보와 민주당 이용빈 후보, 나경재 정의당 시장

위원장, 정의석 민주당 공동대표가 본선을 준비하고 있다. 광산을은 지난 20일 재경선 끝에 후보자격을 획득한 민주당 민형배 후보, 정의당 김용재 후보, 민생당 노승일 후보, 노동당 이병훈 후보 등이 표밭을 다지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도 총선 대진표가 굳어졌다. 목포는 현역 의원인 민생당 박지원 후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김원이 후보가 공천됐고, 정의당 윤소하 후보도 한 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여수갑은 재심을 통해 공천권을 따낸 민주당 주철현 후보가 무소속 현역 이용주 후보에게 도전장을 냈다. 민생당 주승용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무공산이 된 여수을에서는 민주당 김희재 후보와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세도 후보가 경쟁을 벌인다.

기존 순천 지역이 중심이 된 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민주당 소병철 후보와 전략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선 노관규 후보가 경쟁한다. 순천 일부(해룡면)가 편입된 순천-광양-구례-곡성을은 민주당 서동우 후보와 무소속 현역 정인화 후보가 대결한다.

나주-화순은 민주당 신정훈 후보와 민중당 안주용 후보가 경쟁한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영암-무안-신안은 민생당 이윤석 후보가 도전장을 냈고, 현역인 민주당 이개호 후보가 버티고 있는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은 민생당 김연관 후보와 무소속 김선우 후보가 맞붙는다.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현역인 민생당 황주홍 후보와 민주당 김승남 후보, 그리고 해남-안동-진도는 현역인 민생당 윤영일 후보와 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결전을 치른다.

미래통합당은 광주 서구갑에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를, 광주 북구갑에 범기회 호남의병연구위원장을 공천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6곳에 후보를 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으라차차, 힘내요... 봄이 왔어요” 광주 광산구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외벽에 “으라차차, 힘내요. 우리 잘 하고 있잖아요” “수완 왕버들에 연두빛깔 새잎 돋습니다. 월곡시장에 도다리 썩국 내음 진동합니다” 등의 희망메시지를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경제를 살려라”...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의 뜬다

민관협력기구로 구성 ... 서민 생계지원 방안 오늘 첫 회의

광주·전남 해외서 입국 코로나19 확진자 1명씩 발생 ‘비상’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민관협력기구인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를 출범한다.

시는 앞서 지난 6일 의료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 방역 대책보다 한단계 강화한 방역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정부로부터 ‘모범적·안정적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호평을 받고있다.

광주시는 “23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지역경제 대책 수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광주 비상경제대책 제1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와 서민 가구 생계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윤섭 광주시장 주재로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송중욱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고용노동청, 중소기업진흥청, 코트라(KOTRA) 지원단,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양대노총, 한국은행, 5개 자치구 등 25개 기관 대표가 참여한다.

시는 비상경제 대책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 실무회의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윤섭 시장은 “유례 없는 경제위기로부

터 시민과 지역사회를 지켜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지자체, 정부 기관, 노동계, 금융기관, 경제 관련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방위적 협업 체계가 절실하다”면서 “비상경제 대책 회의는 모든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 결집해 조기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코로나19는 최근 들어 해외에서 역류입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오후 북구에 사는 3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었다. 신천지 전도사인 A씨는 해외선교를 위해 남미 볼리비아에 장기간 거주하다 다른 신도 3명과 지난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함께 귀국한 신도 3명과 A씨의 가족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중이다. 남미 입국자 중 확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선별진료소 검사 당시 자가 격리를 안내받고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로로 미용실과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남에서도 지난 21일 해외 입국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다. 체코에서 2년 6개월간 지내던 무안군 분기가 혼자 내려온 40대 남성 B씨다. 그는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17일 가족과 함께 프랑스 파리를 경유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으며, 입국 당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은 없었다. 22일 0시 기준 국내 총 누적 확진자는 8897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방역지침 어기면 관용 없이 법적조치”

정세균 총리 “시설별 실천상황, 매일 집중 점검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메시지는 향후 보름을 코로나

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시기로 보고 이 기간 내에 방역의 성공을 위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은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 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렸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면서 “지역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인화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본사인사
▶정은조: 전남총괄취재본부장
▶문병선: 서부취재본부장(목포주재 겸임)
(3월 23일자)

왜 호남권에 들어서야 할까요?

- 시너지효과 창출**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한전공대와 연계한 기초과학 연구분야
- 관련 기업 집적**
가속기 활용도가 높은 에너지, 신소재, 화학, 바이오, 자동차 기업 등
- 국가 균형발전**
국가 첨단연구시설이 전무한 호남권에 구축 필요

방사광가속기란?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키고, 이때 만들어진 빛(방사광)을 이용해 물질의 기본입자를 관찰하고 성질을 분석하는 최첨단 연구시설.
에너지, 반도체, 신소재, 바이오 신약개발, 화학, 나노기술 등 모든 과학분야에 활용 가능.